

불자 세상보기

박 명 순
前 동대부속여고 교장

# 교사의 얼굴

어느 해 바람이 옷깃에 차갑게 느껴지던 늦은 밤, 우리 학교 교실마다 형광등이 대낮처럼 켜져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반복되는 자율학습 시간을 지내며, 쉼없는 줄긋기를 힘들어 하듯 맥 빠진 모습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다.

그 풍경 한 켠에는 연이은 수업과 진학지도로 피곤한 담임교사가 수업지도에 석고처럼 굳은 얼굴을 창가에 비추고 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마저 바윗돌 구르는 것처럼 들릴 만큼 정적이 흐른다. 이따금 불호령이 졸고 있는 학생들을 깨울 뿐. 또 다른 한 켠에는 어둠 깔린 운동장, 학교 주변을 서성거리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교실을 향해 꽂혀 있다.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희망과 포부, 꿈과 이상을 펴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대부속여고는 부처님 자비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다. 부처님 자비 아래 고운 마음, 옳은 행동으로 바른 마음에서 새로운 의욕을 다짐하며 학생들에게 밝은 얼굴로 다가서는 이들이 우리들(교사)이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 그들(학생)이 교정에서 넓은 사회를 위해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 생각의 폭을 넓혀 잠재된 능력을 꽃 피워 사회의 동량이 될 때까지 돕는 것이 교사의 몫인 것이다.

얼마 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암울한 사회의 그늘과 빈곤의 소리가 교정 안으로 성큼 다가선 듯 하다. 시행 전부터 전국 단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따지던 논란이 결과 발표 후에는 집계 오류와 보고 누락 등 조작 의혹을 더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학생이, 학교가 일렬로 세워져 서열화된 결과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차치하고 사회 이슈로 떠오른 학업성취도 평가를 어찌해야 할까?

당장 서열화된 지역과 학교를 보는 순간, 뒷줄의 학교 선생님들은 곤욕을 치루겠구나 하는 노파심이 앞선다. 학부모의 성난 소리와 폭행이 2008년 한 해 일어났던 교사인권 침해의 30%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석고처럼 굳은 얼굴로 교실에 서 있던 교사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하는 것만이 옳은 선택일까? 당장 중단하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학력미달 학생들은 어떻게 찾아내 도울 것인가?

교사의 사명감과 그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재량과 판단에만 맡길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미 교육은 학생의 인성과 교과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할 사회문제다.

교육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고, 평가 없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물론 교사의 능력 성장을 가늠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집중된 지역을 파악함에 있지, 학생들 평균 성적이 몇 점인가에 있지 않다.

평가를 주관한 교과부도 이번 평가의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완벽한 대책이 없다면 또 다시 잘못된 평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두 번 죽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나는 항상 생각한다. 내 안의 교육철학이 무엇일까? 내가 그들에게 안겨줄 선물은 준비하고 있는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제도적인 방편일 뿐이다. 자애로운 교사의 지도가 없다면 학업성취도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중도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부를 갖고 다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불보살의 자비가 맥 빠진 학생들에게는 활기를, 석고처럼 굳은 교사에게는 미소를 안겨주길 바라며.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說

### 출가 · 열반절 '자기' 찾는 기간

부처님의 출가절인 음력 2월 8일(3월 4일)부터 열반절인 15일(11일)까지는 불교도들에게 매우 뜻 깊은 기간이다. 탄생 출가 성도 열반 등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일을 기념하는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출가와 열반절이 7일 간격으로 배치돼 이 기간 불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출가는 승가에 국한하는 일일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단순히 수행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몸으로서의 출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심을 하는 것도 출가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날마다 출가하라. 매 순간 출가하라"고 가르쳤다.

실제 큰스님들 가운데도 날마다 아침에 오늘이 출가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정진한다는 분들이 많다. 늘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것이 출가인 것이다. 이렇듯 간절한 출가의 마음을 갖는다면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열반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무명번뇌를 완전하게 제거한 것을 의미하기에 불자들이 다다라야 할 최종 목적지인 것이다.

출가와 열반절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은 승가로서 혹은 재가로서 어떤 발심을 하고 있는지, 나의 발심은 견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열반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행실은 불자다운가를 끝없이 되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기간을 기려 전국의 많은 사찰이 용맹정진 등 뜻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한다. 불자라면 자기를 찾는 이 정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대불련의 전성시대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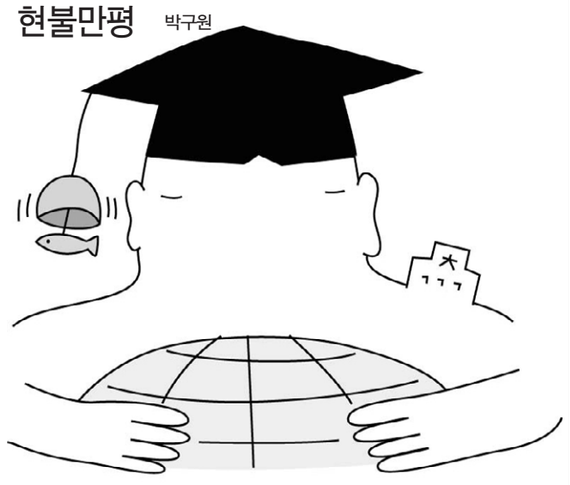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 포교에 훈풍이 불고 있다. 날로 변해가는 캠퍼스 문화는 포교와 항상 반대방향이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대학 신입생 포교를 위한 거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의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은 '신입회원 모시기'에 비지땀을 흘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불련 총동문회가 대불련과 대학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불련 초창기 맴버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명호근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대불련 총동문회는 단체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격을 갖추고 일정의 수익사업을 해 거기서 조성되는 기금을 후배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신한 발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획이다.

이렇게 총동문회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 그간 무관심했던 동문들이 하나 둘 모여들 것이고 각 종단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깃발을 들면 뜻을 모을 수 있는 일이 포교, 그것도 신세대 포교가 아니겠는가.

그간 대학 포교의 침체에는 지원 부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어느 종단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불련 총동문회의 법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하루 속히 대불련의 전성시대가 오길 기다린다.

현불만평 박구원



인재양성에 큰 힘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 "순수하고 깨끗한 초심으로 돌아가자"

### 3월의 테마-처음처럼

올해는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선출과 중앙승가대학 총장 등의 중요소임이 정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초심(初心)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공심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수행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초심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 초심은 처음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맑은 청정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발심수행적인 면에서 보면 처음 깨달음을 일으키고자 가졌던 마음인 초발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미로는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가졌던 바르면서 곧은 마음(直心) 마음을 가리킵니다.

특히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처음 마음으로 발심한 원력의 마음이 깨달음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심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변질돼 버릴 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로 들면, 참선수행을 하는 자의 경우 처음에는 결가부좌 자세로 선정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뇌로 인하여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정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가 점차 번뇌 망상으로 인해 기도삼매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깨달음과 기도의 성취에 대한 마음보다도 우리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올바른 수행을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힘이 들어 수행을 계속 하지 못하겠다'라는 퇴굴심(退屈心)과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생겨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 사회적 면이나 종교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처음엔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게으름없이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을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생각의 상(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념적 생각이나 자신을 괴롭히게 되며 내 마음을 욕심과 집착으로 물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이 처음 가졌던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마음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났을 때 가능해집니다.



신공 스님
통도사 창원포교당 주지
동국대 박사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